

보도시점

2026.6.7.(일) 11:00
< 6.8.(월) 조간 >

배포

2026. 6. 5.(금)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5차 공식협상 개최

- 6.8. ~11일, 몽골(울란바토르), 상품양허, 원산지 등 15개 분야 본격 협상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6.8(일)~11(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5차 협상에는 우리측 권혜진 통상교섭 실장과 몽측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몽골 CEPA는 '23.12월 협상 개시 이후 '24년 11월까지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 몽골측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금년 3월부터 양측간 재개 논의를 통하여, 1년 7개월만에 협상 지속의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한국과 몽골은 산업·교역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다. 제조 및 기술역량을 갖춘 한국과 리튬, 구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인 몽골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할 경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공급망 등 경제협력 관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화상),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를 포함하여 총 15개 분과 협상을 진행하여 상호 쟁점을 대거 해소하고, 협상의 진전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몽골과의 CEPA는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진전을 도모함으로써,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정교섭관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30)
	통상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목연주 (044-203-5833)